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인간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다운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탄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라
(골 3:3)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5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조광현 편집: 양재웅

십자가를 통한 승리, 부활!

“정사와 권세를 벗어 버려 밝이 드리네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골 2:15)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모든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영광의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골 2:15).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서로 떼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서부터 부활, 승천에 관한 일련의 사건은 한 덩어리요 단련에 일어난 유익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있을 수도 없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신 완전한 희생 제사이기 때문입니다(히 2:17). 이처럼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신 뒤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8-20).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의 은총을 입은 우리들의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땅 끝까지 나아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놓고 전해 주신 부활의 소식을 우리도 생명을 내놓고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벧전 1:3).

십자가의 예수! 부활하신 주님!

가상 칠언
(架上七言)

상의 칠언의 말씀들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영광의 부활이 있기 전까지 당하셨던 십자가의 고난을 마음 속에 담길 바랍니다.

제1언의 말씀 :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눅 23:34) 예수님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분입니다. 구약에는 아버지란 말이 없으나 예수님은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주기도문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2언의 말씀 : “내가 전실로 네게 이르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 23:43) 우리는 양쪽에 달린 두 강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양쪽 십자가에 달리고서도 그 죄를 깨닫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3언의 말씀 :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요 19:26,27) 세 번째 주님의 눈동자가 집중된 곳은 여기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에 한없는 슬픔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어머니를 향해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 대략 6시간 동안 참기 어려운 고난을 받으시면서 마지막 말씀들을 남기셨습니다. 가상 칠언(架上七言) 우리는 이 말씀들 묵상하는 가운데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 성(聖)오순절에 있었던 집회의 말씀과 찬양의 중심 메시지가었던 십자가

제4언의 말씀 :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마 27:46)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쭙하여 나를 버리셨어이까?”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고뇌에서 비롯된 절규였습니다. 이런 절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5언의 말씀 : “내가 목마르다!”(요 19:28)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인성(人性)을 입증하고 신성(神性)을 나타내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은 곧 목마른 인생인 우리들을 부르시는 뜻도 있습니다. 인생은 어디서 무슨 물을 마셔도 그 심한 갈증을 해소할 길 없으니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제6언의 말씀 : “다 이루었다!”(요 19:30) 십자가에 달리시자 전날 밤에 가족 책역으로 서른아홉 대의 매를 맞으셨습니다. 또한 가시관을 쓰신 머리와 대못에 박힌 양손과 양 발에서도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군병의 창에 영구리를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벗은 채로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계셨습니다. 이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어도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그가 하신 일을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제7언의 말씀 :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눅 23:46) 예수님은 아버지란 말씀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서 마지막 말씀을 아버지께 맡겼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겼다면 자신을 향해 물어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몸과 피를 흘린 십자가의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습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리고 나아가 죄의 침입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 1:18).

그리스도 복음의 일꾼(살전 3:2)을 세우는 일

다음주일(4월 3일) 4부 예배 후 공동의회

추수할 곡식을 위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눅 10:2).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추수의 때입니다. 추수할 일꾼이 필요한 때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복음의 일꾼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엡 3:7). 계속해서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골 1:25)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교회는 바울처럼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 설 일꾼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이에 38대 장로 7명과 18대 안수집사 43명이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이 분들이 추천되기까지 수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십자가 복음에 합당한 일꾼이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여러 가지 평가기준을 두고 후보를 추천받아 결정하였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알려드린 대로 공예비 및 금요집회 참석, 십일조, 자원봉사의 유무에 그 기준을 두었으며, 다음에는 주요성경공부의 학점수 여부도 그 평가기준으로 삼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꾼을 세우는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공동의회가 다음주일(4월 3일) 4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공동의회는 직분에 관계없이 세례교인 이상인 분은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비말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고전 4:1)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마 26:39)을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장로 - 안수집사 후보 명단은 5, 6면에 있습니다.)

*주요2부 예배, 금요찬양회 시간변경 안내

오후 7시에서 7시 30분으로 이전 주 금요집회(4월 1일)부터 변경됩니다.

*다음주일(4월 3일)에는 제4차 CMTC훈련이 있습니다.

PAUL'S TRANSFORMATION

“(4)and he fell to the ground, and heard a voice saying to him, “Saul, Saul, why are you persecuting Me?” (5)And he said, “Who art Thou, Lord?” And He [said,] “I am Jesus whom you are persecuting, (6)but rise, and enter the city, and it shall be told you what you must do.”(Acts 9:1-6)

The biblical story of Paul's conversion from Judaism to Christianity is truly an uplifting and encouraging account of Jesus Christ's power to change people. Paul's transformation, from the worst of sinners to the best of saints, boosts our confidence in the strength of God's wonderful grace. It truly does not make a difference how dirty, rotten, and disgusting you are, because Jesus Christ has the authority and ability to make you clean, fresh, and attractive. Paul was a sinful man, more set in his ways than most, but Jesus Christ transformed him and used him for God's glory to start many new Christian churches. His life went from one extreme, hating Christians, to another, loving Christians.

Paul came from a devout Jewish home. His mother and father provided him with a strict religious education. As he was growing up, he studied hard and became a Pharisee, well above his colleagues. People respected him, and his future held worldly promise. Indeed, he loved the Lord and took much pride in his religious background. As a Jewish leader, he was determined to protect his Jewish religion. When Stephen gave his sermon before the Council, Paul helped drive him out of the city to be stoned and killed (see Acts 7:58). He had a clear opinion, he was a brave man, and he thought killing Stephen was the right thing to do. He hated Christians, and even "began ravaging the church, entering house after house, and dragging off men and women, he would put them in prison"(Acts 8:3). The Christians sustained great damage, but they still loved Paul and Jesus, and in spite of everything, continued to proclaim the Gospel of Grace. Paul could not bear their determination, it made him sick. He went to the high priest, "still breathing threats and murder against the disciples of the Lord," to ask permission to round up those who escaped Jerusalem, so that he could bring them back for punishment (Acts 9:1&2).

Paul was a man on the wrong mission, but Jesus changed all that on the road to Damascus. After Paul met Jesus, his whole life changed. He told the Galatians, "For you have heard of my former manner of life in Judaism, how I used to persecute the church of God beyond measure and tried to destroy it; and I was advancing in Judaism beyond many of my contemporaries among my countrymen, being more extremely zealous for my ancestral traditions"(Gal. 1:13&14). Paul was once an ardent man for Jewish tradition, his attitude was now against it. When Jesus called for Ananias to heal Paul of his blindness, He told him, "Go, for he is a chosen instrument of Mine, to bear My name before the Gentiles and kings and the sons of Israel; for I will show him how much he must suffer for My name's sake"(Acts 9:15&16). Paul's life changed internally, externally, and eternally. He became a messenger for Jesus Christ. Before he was arrogant, now he was humble.

Paul's life did not change abruptly. He witnessed Stephen's death. He saw Stephen full of the Holy Spirit, kneeling down but looking up toward heaven, saying, "Behold, I see the heavens opened up and the Son of Man standing at the right hand of God"(Acts 7:55&56). He noticed that his face and attitude were like an angel, and that he was not scared. That scene remained in his heart. When Jesus blinded him on the Damascus road, he could not eat, drink, or sleep, but only cry

with great remorse over Stephen and the many other beautiful Christians he hurt. He realized that he was an enemy of the Lord Jesus, the real Son of God. He suffered, prayed, and repented, and the Lord heard him. Ananias came to him and laid his hands on him, saying, "Brother Saul, the Lord Jesus, who appeared to you on the road by which you were coming, has sent me so that you may regain your sight and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Acts 9:17). Paul hated Christians, but Ananias called him "Brother". Is not that amazing grace? Ananias accepted, loved, and forgave Paul. Paul did not deserve it, but through Jesus Christ, he now has a strong relationship with all Christians. Now, he loves the church of Christ and works with Christians to build it up. His friendships and fellowships with other believers are marvelous.

Jesus changed Paul for a reason. His life had an objective. During his first visit to Damascus, he was blinded, but upon his return, his eyes were spiritually open, and immediately he began to proclaim Jesus in the synagogues, saying, 'He is the Son of God'(Acts 9:20). Complete change! He went from destroying Jesus to loving Jesus. He went from being a leader in Judaism to being a leader in Christianity. He went from tearing down the church to building it up. Moved by the Holy Spirit, he became a preacher, a messenger of God. He was nation-centered, now he is kingdom-centered. Now, he talks about the gospel and love, "Love is patient, love is kind and is not jealous; love does not brag and is not arrogant"(1 Cor. 13:4). What a change! With Jesus in his heart, Paul proclaimed, "Love never fails... But now faith, hope, love, abide these three; but the greatest of these is love"(1 Cor. 13:8, 13). Paul declared the love of God because he knew that the love of God is Jesus Christ, which is the Gospel. Can you see how much his objective changed?

Today is the first Sunday after Easter. Jesus' death and resurrection change people. Paul thought he was walking with God, until he met Jesus. Jesus opened his eyes, turned him around 180 degrees, and guided him in the right direction. He transformed Paul from a sinner full of death to a child of God full of life. He can change you too! Paul met Jesus on the road to Damascus, you can meet Jesus anywhere, anytime. Just call Him, confess you are a sinner, repent, and He will forgive you. He will cleanse you, refresh you, and fill you with His Holy Spirit to shine brightly forever. He will transform you into a child of God, and guide you all the way to heaven to live with Him forever.

My dear friend, what is the story of your background? Where are you going? What is your objective? I hope you have met Jesus and decided to follow Him. The world has too many unbelievers, and the church has too many Saul's. Without Jesus, there is no transformation. You simply cannot head in the right direction on your own, no matter how hard you try. You can read the Bible until you are blue in the face, you can pray for days on end, you can be the sweetest, kindest, and most generous neighbor, and you can even give more than ten percent of your income to the church, but without Jesus, it means nothing, absolutely nothing. Only Jesus can change you into God's child. You need Jesus because you need transformation. 🌱

바울의 변화

“...^①땅에 었드려져 들으매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②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③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행 9:1-6)



김성관 목사

유대교 신봉자에서 그리스도에게 온전한 헌신된 자로, 바울의 온전한 변화는 한 인간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가장 극악한 죄인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로 변화된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더럽고, 추악하고, 가증스럽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주님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고, 순수하며,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 때문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자기 고집대로 행했던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변화시키셨고, 많은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여 주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그의 인생은 극에서 극으로 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려면 치를 떨던 그가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변화되기 전

바울은 경건한 유대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로부터 엄격한 종교 교육을 받으며 자란 그는 열심히 공부하여 동료들 중에서도 월등히 뛰어난 바리새파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못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전도유망하고 열기왕성한 젊은이였습니다. 사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남달랐고, 자신의 종교적인 배경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그가 유대교의 한 지도자로서 자신이 신봉하는 유대교를 보호하기로 결심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스테반이 공회에서 예수를 증거했을 때 스테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 돌로 쳐 죽이는 데 한몫했습니다(행 7:58). 그는 학고한 신념을 가졌을 뿐 아니라 대담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스테반을 죽이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중요성으로 가득 찼던 바울은 마침내 회교를 잔멸하고 각 집에 들어가 남자를 끌어내어 옥에 넣기 시작했습니다(행 8:3). 그리스도인들이 반은 바치는 참으로 끔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바울과 예수님을 사랑했고, 극한 박해 속에서도 은총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와 같이 공격도 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에 기가 죽은 바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욱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가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빠져 나간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잡아들이기 위해서였습니다(행 9:1,2).

변화의 과정

바울은 회교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의 전 생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간증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멸하고 내가 대 통족 중 여러 연장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언에 따라 더욱 열심이 있었으나”(갈 1:13,14). 바울은 한때 유대교의 전통을 열성적으로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니아니하게 바울의 눈을 다시 보게 하시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은 네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네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행 9:15,16). 바울의 삶은 보이는 부분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지금은 겸손하게 낮아졌습니다.

바울의 삶이 참처럼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스테반의 순교를 목격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테반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하는 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 위에 서신 것을 보라”(행 7:56). 바울은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음 속에서도 스테반은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장면은 그의 마음 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의 눈을 멀게했을 때, 그는 미치도록, 마치 지도, 잠자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자신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스테반과 다른 많은 순결한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며 눈물로 통회할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를 대적하는 자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괴로워하며 기도했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니아니하게 바울을 찾아가 안수하며 말했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행 9:17).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중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아니하게 그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아니아니하게 바울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사랑했으며, 용서했습니다. 바울은 그럴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도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과 묶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했고, 여러 형제들과 함께 협력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다른 성도들과 나눈 우정과 사랑은 실로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변화의 이유

예수님이 바울을 변화시킨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변화되기 전까지 바울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메섹에 처음 갔을 때 바울은 잠시 동안 시력을 잃었지만, 돌아올 때는 영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과 아들인 십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행 9:20). 바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를 사랑하는 자로, 유대교의 지도자에서 기독교의 지도자로, 회교를 무너뜨리는 자에서 회교를 세우는 자로,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성령에 이끌림을 받으며 하나님을 전하는 자, 곧 주의 심부름꾼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에게는 민족이 가장 중요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최우선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복음과 사랑에 대해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부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고전 13:4).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가슴에 그리스도를 품고 그는 외칩니다. “사랑은 언제나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전 13:13). 이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진포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보이십니까?

변화의 능력

오늘은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의 영안을 여시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새 생명을 넘치게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지만,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부르거나 하십시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시고 참회함으로써 회개하십시오. 그러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며,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빛이 우리를 영원토록 비취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에 이르게까지 절음결음마다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인생을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은 ‘자율’이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변화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밤낮으로 성경을 읽고 또 하루 온종일 기도한다고 해도 절대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상냥하고, 친절하고, 믿음이 넓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심입조를 하는 신실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결국 헛고깃돌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까지 완전히 변화되도록 해를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수요1부 예배 메시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자

(벤전 4:12, 13)

때가 마지막 때임을 깨달아야 한다(벤전 4:7).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이적의 체험과 말씀을 들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부인했다. 이런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 변화된 뒤에 그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었다. "만일 누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벤전 4:11).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현재 당하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쁨으로 참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벤전 4:12, 13).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베드로는 말한다(벤전 4:16). 왜냐하면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벤전 4:17).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아야 한다.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성취됨을 믿어야 한다(벤전 4:19). 우리는 세상적인 행동과 속박만을 찾는 태도를 버리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

놀라지 말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때 놀라지 말아야 한다. 세상은 항상 그리스도를 미워한다(요 15:18).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핍박, 저주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을 때 강한 믿음이 필요하다(요 15:19).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받은 자이다.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믿음의 중언이 되어야 한다(빌 1:29). 고난은 항상 그리스도인들에게 따라온다(딤후 3:12).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기도 한다. 우리는 이런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영의 눈을 뜨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요일 3:13).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야 한다.

즐거워하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고통이 있을지라도 즐거워하자. 자기를 부인하며 고난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과 기쁨이 넘친다. 한 때 제자들의 모습은 세상의 영

광을 좇았지만, 이들이 변화된 뒤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능욕받는 것을 즐거워했다(행 5:41). 또한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찬양을 하였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듣든지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죄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 잠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들더라"(행 16:23-25). 이처럼 그리스도의 고난, 사랑을 깨달을 때 기쁨이 넘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고후 6:10). 이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만이 고난에 담겨 있는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십자가야말로 가장 치열한 것이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세상의 가치관, 명예를 따르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히 10:34). 우리의 본향인 천국이 있음을 잊지 말자. 오직 그 곳을 소망하며 현재 당하는 고난을 즐거워하자.

놀라운 상이 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은 복을 말씀하셨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마 5:11, 12).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고난을 통한 것이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로 8:15, 17). 우리 앞에는 십자가의 좁은 길이 놓여 있다. 영원한 영광이 고난을 통해서 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가 받은 영광에 비한다면 고난은 가벼운 것이다(고후 4:17). 우리가 인내하며 십자가를 질 때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주신다(딤후 2:10). 모세도 하늘의 큰 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난 속에서 인내하였다(히 11:26).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 놀라지 말고 즐거워하며 놀라운 상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 더불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믿음으로 단기선교에 임해야 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 편안하게 선교하려 말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난의 십자가만을 증거해야 한다. 자신의 경험과 계획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는 선교가 아닌 그리스도의 흔적만이 남는 선교가 되어야 한다(갈 6:17). 이를 위해서 우리는 죽어야 한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요 12:24). 우리가 더욱 십자가 앞에 깨어지며 낮아져야 한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다. 주도 곤혹 당했으니 나도 곤혹 당하리.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찬 367장).

예수님의 부활

난 예수님이 참 좋다.

예수님! 많이 아프셨지요?
3일 동안 참 힘드셨지요?

저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참 놀라워요.
저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참 기뻐요.

저도 예수님처럼 영원히 사는 거죠?
저는 예수님이 계셔서 참 기뻐요.

예수님 부활, 나도 부활
아! 좋다.

장수 (유년부)



정말 기뻐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 다니는 문아영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정말 기뻐요. 예수님 지의 때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큰 고통 가운데

돌아가신 게 너무 슬펐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정말 기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고 선생님께 배웠거든요.

이제부터 예수님 말씀따라 죄 짓지 않고 살게 해 주세요.

그리고 성경책 매일매일 읽게 해 주세요.

엄마가 밥을 먹기 전에 성경 말씀 3장씩 읽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엄마가 밥 먹기 전에 3장씩 읽으라고 하나면요.

밥을 3기 먹는다고 3장씩 읽으래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 밥을 먹듯이

영혼의 건강을 위해 영의 양식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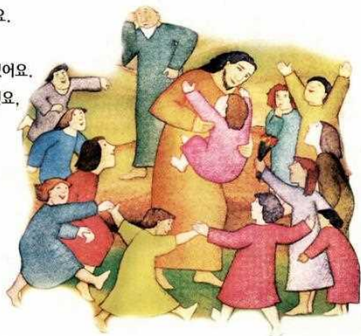
성경 말씀도 읽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이제부터 예수님을 친구들에게

많이 많이 자랑할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럼 안녕히 게세요.

문하영 (초등부)



제38대 장로 후보자 명단



김 규 석	
나이	52
교구	6
직역장	청년2부부장
봉사 부서	
번호:1	



문 호 식	
나이	61
교구	4
직역장	영아부부장
봉사 부서	
번호:2	



박 상 대	
나이	55
교구	2
직역장	한림부아부대장
봉사 부서	
번호:3	



신 광 철	
나이	52
교구	4
직역장	제직회서기
봉사 부서	
번호:4	



신 선 길	
나이	67
교구	4
직역장	장년2부 부감
봉사 부서	
번호:5	



유 상 태	
나이	60
교구	18
직역장	장년2부교사
봉사 부서	
번호:6	



최 차 용	
나이	68
교구	8
직역장	장년3부교사
봉사 부서	
번호:7	

(가나다순)

제18대 안수집사 후보자 명단



강 천 석	
나이	62
교구	7
남성구역장	현금부
봉사 부서	
번호:1	



김 규 용	
나이	55
교구	16
남성구역장	장년1부교사
봉사 부서	
번호:2	



김 낙 홍	
나이	59
교구	13
남성구역장	아연찬양대
봉사 부서	
번호:3	



김 동 철	
나이	37
교구	2
남성구역장	
봉사 부서	
번호:4	



김 병 수	
나이	42
교구	13
교회직원	
봉사 부서	
번호:5	



김 상 열	
나이	48
교구	18
한림부아찬양대	
봉사 부서	
번호:6	



김 영 목	
나이	39
교구	12
소년부교사	
봉사 부서	
번호:7	



김 재 호	
나이	44
교구	16
남성구역장	타아부교사
봉사 부서	
번호:8	



김 종 규	
나이	54
교구	9
차량부	
봉사 부서	
번호:9	



김 황 진	
나이	48
교구	17
교회직원	
봉사 부서	
번호:10	



노 은 영	
나이	59
교구	17
한림부아찬양대	
봉사 부서	
번호:11	



노 정 화	
나이	54
교구	4
남성구역장	새가족부교사
봉사 부서	
번호:12	



박 명 호	
나이	39
교구	7
임마누엘찬양대	
봉사 부서	
번호:13	



박 영 섭	
나이	50
교구	7
장년1부교사	예배안내
봉사 부서	
번호:14	



박 종 운	
나이	54
교구	5
남성구역장	청년2부교사
봉사 부서	
번호:15	



박 춘 군	
나이	62
교구	8
남성구역장	예배위원
봉사 부서	
번호:16	

제18대 안수집사 후보자 명단



변창대	
나이	49
교구	8
봉사 부서	에바다부
번호	17



송순호	
나이	65
교구	12
봉사 부서	아멘찬양대
번호	18



송하천	
나이	49
교구	6
봉사 부서	소망부교사 남성구역장
번호	19



안세현	
나이	48
교구	2
봉사 부서	의료전도부
번호	20



이근호	
나이	53
교구	14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번호	21



이민호	
나이	60
교구	14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바울전도회장
번호	22



이병근	
나이	60
교구	4
봉사 부서	전도회장 차광부사
번호	23



이선만	
나이	59
교구	11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아멘찬양대
번호	24



이양호	
나이	53
교구	10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장년1부교사
번호	25



이창우	
나이	60
교구	17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아멘찬양대
번호	26



장석창	
나이	50
교구	5
봉사 부서	임마누엘찬양대
번호	27



전삼진	
나이	60
교구	1
봉사 부서	바울전도회장
번호	28



전진국	
나이	48
교구	11
봉사 부서	할렐루야찬양대
번호	29



정금수	
나이	65
교구	18
봉사 부서	새가족부 가브리엘찬양대
번호	30



정문호	
나이	52
교구	9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차광부
번호	31



정재영	
나이	38
교구	18
봉사 부서	청년2부교사
번호	32



정창원	
나이	51
교구	1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교구간사
번호	33



조홍연	
나이	59
교구	2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번호	34



채홍표	
나이	53
교구	4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영아동역
번호	35



최광현	
나이	58
교구	3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아멘찬양대
번호	36



최용길	
나이	56
교구	6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소망부교사
번호	37



최우근	
나이	55
교구	5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할렐루야찬양대
번호	38



최진성	
나이	58
교구	15
봉사 부서	차광찬양대 전도회임원
번호	39



최홍섭	
나이	50
교구	15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페드로전도회장
번호	40



한용배	
나이	51
교구	8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예배위원
번호	41



한현석	
나이	57
교구	3
봉사 부서	바울전도회장 아멘찬양대
번호	42



한호철	
나이	66
교구	15
봉사 부서	지역장 장년2부교사
번호	43

선교를 다녀와서

선교는
주님의 일

선교지의 날씨는 더웠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팀은 사역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점차 아픈 사람들이 늘어났고 결국 나도 많이 눕고 말았다. 사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나 말고도 한 명이 더 나와 결국 두 명이 사역을 나가지 못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아파서 사역하지 못 하는 것이 너무 화가 났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씩이나 사역에 못 나가면 그 만큼 복음을 전하지 못 하게 되니, 충분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조차 복음을 듣지 못 하게 된다고 생각이 미치자 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나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갔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 나를 아프게 하시고, 쉬게 하신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한 사역은 정말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내 생각대로 전하는 선교였기 때문이다. 그것을 일깨워 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더불어 빨리 나아져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깨달았음을 감사했다. 우리 팀은 이 일로 인해 더욱 기도하게 되었다. 그 날 오후 나는 완쾌되지 않은 몸으로 사역에 동참했다.

주님의 은혜로 다음 날은 몸이 온전히 완쾌되어 다행히 사역을 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남은 팀원 한 명은 그때까지 완쾌되지 못 했다. 그 팀원 혼자만 숙소에 두고 다시 사역을 나갔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숙소에 남아 있던 그 팀원이 혼자서 전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큰 헌함을 받았다. 전날 나는 아픈 팀원이 같이 있다는 핑계로 더 아픈 척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팀원은 달랐다. 혼자서 아픈 몸을 이끌고 전도를 하려고 나온 것이다. 잠깐 아픈 것 때문에 불평만 했던 내 모습이 정말 창피했다.

이번 선교로 나는 많은 것을 깨달았다. 선교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일임!

'주님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선교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박효선 (대학부)

한 영혼을 위한 증인들의 고백

은총을 입은 많은 단기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금요일에 매에 고백했던 선교 보고 내용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 주님에서 앞서 가셔서 영혼들을 준비해 놓으셨다.

* 우리를 도우려 삼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 우리는 초강하게 부렸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온 지역에서 믿음으로 굳게 하실 줄 믿는다.

* 복음을 모르는 그들 앞에 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영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눈물이 필요했다."

*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나 자신이 말씀보다, 성경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었다.

* "사람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요일 4:10). 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 시리도록 아픈 찔러움을 제 가슴에 새겨주신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 지난주 도착한 선교팀

기간	팀원	팀장
3월 14(월)~3월 22(월)	직원3	최상기
3월 14(월)~3월 22(월)	12교구 5지역	구기성
3월 14(월)~3월 22(월)	5교구 2지역	장석문
3월 15(월)~3월 22(월)	15교구 1지역	한호철
3월 15(월)~3월 24(월)	10교구 추가	박재민

▲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기간	팀원	팀장
3월 28(일)~4월 5(월)	11교구 6지역	박성영
3월 28(일)~4월 6(월)	15교구 5지역	조성훈
3월 28(일)~4월 7(월)	직원4	서준성

▲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기간	팀원	팀장
3월 21(일)~3월 30(일)	17교구 4지역	차창숙
3월 21(일)~3월 30(일)	18교구 3지역	고승균
3월 24(월)~4월 1(일)	청년2부	이원환

*'오직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선교기도회 : 매주일 오후 4:00 / 김필림)

다음주일 찬송

203장 나 행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찬양이다. 1816년 호레이시우스 보나 박사(Horatio Bonar, 1808~1889)가 작시한 찬송가로 그의 믿음과 소망이 담겨져 있다. 곡은 조지 윌리엄 마틴(George William Martin, 1828~1880)이 1828년에 작곡했다.

1절은 우리의 선함과 공로가 구원을 얻지 못함을 분명히 말한다. 우리의 육신이 아무리 노력하고 주님을 만나려고 탄식하고 울어도 우리의 죄의 짐을 벗지 못함을 말한다.

2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벗겨 주시며, 예수의 보혈과 사랑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모든 근심을 벗은 몸과 영혼에 참된 안식을 가져다 줌을 찬양한다.

3절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찬양을 드리며 그 보람을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근심과 죄악의 짐을 십자가에서 모두 해방하셨기 때문이다.

4절은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을 찬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그 큰 사랑을 기리며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 세상을 이기며 살 것을 찬양한다.

그렇다.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든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고백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자.

(찬양원월호)

세 · 가 · 족 · 을 · 한 · 영 · 함 · 니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804	이형도	19	청년1부	최순재(2)	830	전혜영	5	청년1부	함자옥(8)	856	김유경	8	중동부	박영민(9)	882	정말만	6	청년1부	주순혜(2)
805	정모신	19	중동부	김윤혜(2)	831	노미혜	5	청년1부	함자옥(8)	857	황대자	4	청년1부	권오준(4)	883	박병선	19	청년1부	김동순(15)
806	이금숙	3	외선부	김효순(8)	832	조국심	19	외선부	박진규(11)	858	김주은	19	중동부	김희순(8)	884	정미윤	19	청년1부	박순재(5)
807	태영구	19	고동부	송영복(17)	833	김정민	19	외선부	함정숙(3)	859	이선영	19	중동부	박영민(9)	885	김미경	8	청년2부	박영숙(18)
808	최인호	16	청년2부	이창희(9)	834	김지은	13	대북부	함정숙(3)	860	김영동	10	소망부	최훈철(2)	886	이영희	13	청년2부	고영진(1)
809	남상훈	19	청년1부	유한숙(19)	835	김정혜	16	청년1부	김기경(7)	861	오은주	19	중동부	이현민(19)	887	박혁영	19	청년1부	나혜림(1)
810	정학재	19	청년1부	최상기(1)	836	방희로	19	청년1부	홍순석(16)	862	박재현	19	중동부	이은숙(1)	888	신교지	12	청년2부	유영남(12)
811	정민선	19	청년1부	최상기(1)	837	유지연	19	청년1부	유승훈(15)	863	박지연	19	중동부	김윤영(8)	889	송준영	1	청년2부	전삼진(1)
812	한순자	9	청년2부	송혜화(2)	838	정창환	5	청년1부	이종훈(1)	864	김정림	10	소망부	임영순(10)	890	이하나	15	청년1부	김민서(16)
813	장용기	17	청년1부	장기택(1)	839	박현선	1	청년2부	전순옥(1)	865	박순주	1	청년1부	박희순(11)	891	이성환	8	소망부	김윤영(8)
814	전병주	19	청년1부	이정순(1)	840	정창근	12	청년2부	안영숙(2)	866	김진주	19	청년1부	정숙민(12)	892	정규원	13	청년1부	한영미(17)
815	이형호	8	청년2부	최우영(1)	841	안영민	12	청년2부	안영숙(2)	867	김지수	19	중동부	김우연(1)	893	정하나	13	중동부	박영민(17)
816	김선옥	2	청년2부	황정순(1)	842	이연선	19	대북부	오유순(1)	868	노은주	19	대북부	황은진(1)	894	정승	13	대북부	김숙자(17)
817	이수자	4	청년2부	이현숙(1)	843	정원우	9	청년2부	이은진(19)	869	김영애	14	청년2부	임영숙(11)	895	김미현	13	청년2부	박영민(17)
818	이영희	19	청년1부	이혜영(1)	844	박진주	19	중동부	김윤영(8)	870	김정림	13	청년1부	김숙희(13)	896	김상숙	12	청년2부	김성자(1)
819	이영민	15	청년1부	이정희(1)	845	이영진	19	청년1부	최희순(1)	871	김정현	8	청년1부	정경순(13)	897	서재민	19	청년1부	김영미(15)
820	김나연	19	중동부	정영환(1)	846	최희연	19	청년1부	이유숙(7)	872	김진희	12	청년2부	임은진(19)	898	이재명	4	청년1부	문순심(15)
821	김우리	19	중동부	김영순(1)	847	정원우	9	청년2부	이은진(19)	873	김지은	19	대북부	이영진(1)	899	김영순	8	청년2부	유은영(8)
822	박경진	19	대북부	성지현(1)	848	김수중	4	청년2부	김영희(14)	874	오현주	16	청년1부	구정혜(1)	900	이순길	8	청년2부	황옥영(8)
823	김기원	19	청년1부	장익미(1)	849	이영자	3	청년2부	김정자(2)	875	나혜림	19	고동부	서은진(13)	901	박재준	13	청년1부	김경희(7)
824	최하나	16	청년2부	변금순(1)	850	김남주	3	청년2부	노보선(1)	876	김수아	13	청년1부	김진희(1)	902	정성미	19	대북부	김영숙(14)
825	조성숙	13	청년1부	이혜숙(1)	851	박영진	19	외선부	박희순(12)	877	박수영	12	청년2부	임은진(19)	903	윤영심	2	청년1부	
826	김윤희	19	청년1부	조영숙(1)	852	유영복	8	소망부	이현숙(1)	878	김정현	19	청년1부	김정희(1)	904	유은정	2	청년1부	
827	임영옥	11	청년2부	김재경(1)	853	김성희	8	소망부	김영희(14)	879	박정민	19	청년1부	주순혜(15)	905	김은진	19	청년1부	김진애(8)
828	송정훈	19	대북부	김영희(14)	854	최정우	19	청년1부	이연희(18)	880	조주연	16	청년1부	박영자(1)					
829	이연희	4	청년2부	황정순(2)	855	김윤자	4	청년2부	황영순(16)	881	조현성	19	청년1부	임은진(1)					

* 송창희외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평당 283호 세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오후 11시에 드리는 주일 Ⅲ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Ⅳ부 예배는 스리랑카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